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신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21호
서기 2001년 6월 6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매사 안으로 굴러 밖으로 나올 때 '法'

출가와 재가 공부 다릅니까

문 스님을 읽고 하다 보면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출가를 하는 것하고 현실 세상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리고 여자가 하는 공부, 남자가 하는 공부, 어린애가 하는 공부, 노인이 하는 공부에 구별이 있는 건지요?

답 사람마다 각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있는 거지, 공부에는 그런 구별 자체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는 데요. 뭐, 그렇게 아무 구별이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님이 되어야만 마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스님이 안되면 공부할 수가 없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살림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가족이 있고 스님들은 가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좀 쉽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아무래도 이 마음이 그냥 걸림 없이 넓게 나가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걸 외양도 다르게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고 오기가 쉬운 거죠. 또 보이지 않는 중생들은 마음으로 공부하기 위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건질 수 있는가 하면 속가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을 굴러고 잘 이끌어 나가는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겸해서,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을 천차만별로 나누면서 하기 위해 중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넓게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도,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우주 바깥으로도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 속으로도 숨어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그 생각 자체가, 다시 말해서 어깨에 짊어진 게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렇단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가혹하게 잘 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미흡해서 잘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그것이 나의 공부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죽는 게 두렵다는 생각 들어요

문 저는 평소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하거나 삶에 대해서 집착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급박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죽는 걸 겁 안 낸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차원의 그릇을 가지고 죽

어쨌든 그 차원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죽더라도 아주 아무지 않게 죽어야 그 것도 값비싸게 웃을 빛는 거다 이거지. 내가 육신의 웃을 벗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웃 벗는다고 장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웃 벗을 힘이 있다면 자유스러운 마음에서 웃을 벗고, 즉 말하자면 자기가 만약에 웃을 벗는다고 해도 알준하게 이 도리를 알고 웃을 벗으면 좋는데, 웃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게 이데해서 열반이야. 살아 있을 때 열반을 알아야지 죽었다고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지 진짜 죽은 거지. 육신의 웃을 벗고 죽은 게 다가 아니라 말야.

그러나 진정 둘이 아니게 공부하면 다면 마음으로는 천백 억 화신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그게 숫자가 없는 숫자야. 천백 억이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없는 걸 천백 억이라고 그래. 그런 데다가 이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왜 죽고 저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저게 왜 죽고, 아파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왜 죽고, 가난해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관세음 이 왜 주면서 나투는 이 자체가 바로 진정 죽어야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죽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죽어야 돼. 옛날에 날더러 어느 스님께서 눈뜨고 삼 년만 꼭 자라고 그랬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

눈뜨고 잠을 자라고 그런 것이 뭘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작업을 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주인공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네 주인공의 심부름꾼으로 알고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거기 다 가만 놓고 가는 게 꼭 자는 거야. 쉬는 거고. 이게 옳으나 이게 그르니까 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들어가서 벌써 놓는 게 되지 못해. 이걸 생각해서 한생각에 '야, 이게 옳지' 한다면 그냥 거기다 맡겨 놔. 또 '이게 그르지' 한다면 그른 것도 거기 맡겨 놔. 왜냐하면 그르게 된 건 옳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옳게 되는 것도 거기 보라 하는 것은 옳게 된 것이 좋다고 했으면 언짢게 된 게 거기 붙으니까 그것도 놓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죽더라도, 혹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마음 공부를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죽을 요량을 해야 사람으로 태어난 본의가 있다는 거야. 생각으로만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으로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고 마음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

자문자답 공부 어떻게 합니까

문 스님, 저는 청년회에서 이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법우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자문자답하며 공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공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 하는 느낌이랄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질문하는 것도 저이고 대답하는 것도 저일 뿐 그 대답이 진짜 주인공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주인공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자문자답한다는 수행이 올바른 것인지요?

답 처음에 애가 걸음마 떼어놓을 때 애 잘 걸음걸 알고 걸음마를 떼어놓나? 넘어질 줄 알고 걸음마를 떼어놓나? 넘어지든지 안 넘어지든지, 잘 되든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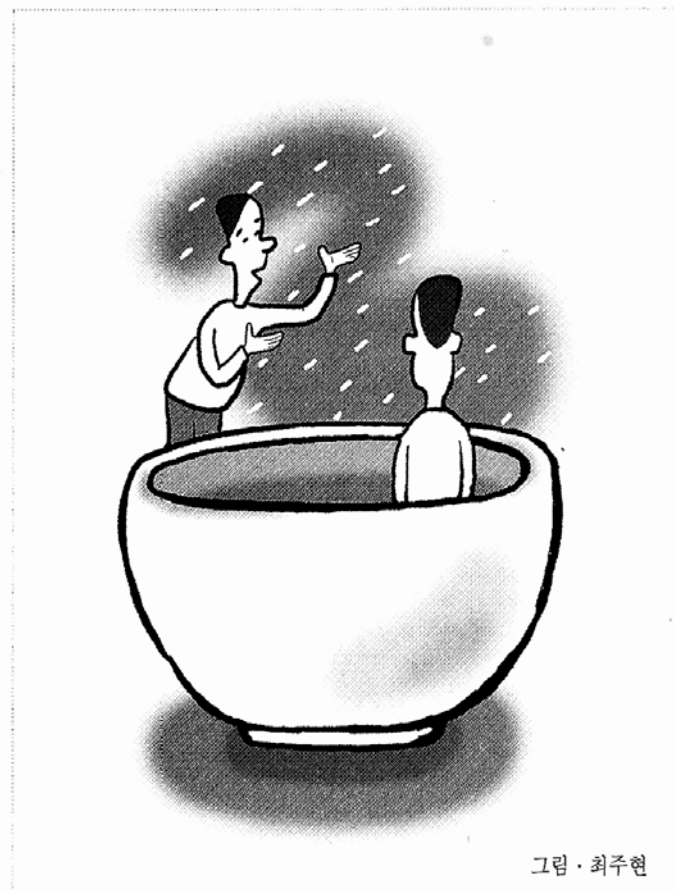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모든 것 처리할 수 있는 한마음이니 너만이 의욕이 생기고 병이 낫고 가정 화목하고 밝게 이끌 수 있다고 진실히 믿을 때 살아가기 편합니다 ”

되든지 그냥 걷는 거야. 그냥 걷다 보면 아주 잘 걸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문자답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누군가가 생명의 근본 불성이 자기한테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나로 생각하고 바깥의 문제들을 가만히 지켜 보라 이거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을지 어떤 걸 해야 옳을지 답이 나온다 이거야. 답이 나오는 것도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믿음을 말야. 모든 거는 그놈이 하는 건데, 거기서 다니는 건데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느냐 이 소리야.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하는 소리는, 모든 바깥 경계를 잘 봐서, 내가 개천을 건너뛰어도 개천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돼 있나를 잘 봐서 발걸음을 떼어놔라 이거야. 그래서 떼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냥 떼는 것이 법이야.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자문자답을 하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모든 거는 거기다 그냥 놓아. 이거는 포괄적인 마음이라 이거야. 한마음 주인공에

다가 아주 진심으로 맡겨 놓으면서 생각을 딱 해 보면, 바깥 경계와 안 경계를 다 잘 봐서 생각을 할 때 그게 바로 법이야.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가다 보면 걸음을 못 걸다가 걸음이 점점 점점 빨라져. 그게 실험이야. 그리고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접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구, 정말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고, 아예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가 하나인데도 들로 보고 이거는 아주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는 거지,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무조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수 억 광년 전에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나를 이끌고 진화시킨 그 주인을 어찌서 믿지 않고 그러느냐 이거야. 이 도리를 깨우치지 못 했어도 진짜로 믿고 거기에 놓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진짜로 믿지 못하고, 한마음 주인공에 놓고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하고 아주 굳건히 자기를 믿는 데 한 달이라도 굳건히 했으면 자

기를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 그런데 이것이 두렵고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쌓아왔던 마음이 두터우면 생각하는 것이 자주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가고 자꾸 마음이 두꺼워져. 정말 그럴까 하고 믿지 못하는 거지.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 허공을 믿을 거야, 형상을 믿을 거야, 이름을 믿을 거야. 그래야 자기 영혼도,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을 구제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한마음, 수억 개의 의식이 보살로 화하게 되는 거야. 자기 영혼을 건진다면 바로 그냥 화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도 리드해 나가면서, 커버해 나가면서 들고 내는데, 레이다 망이 모든 걸,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체크해서 점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두뇌에서 두뇌가 말야.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두뇌에서 발표하고 또 무전통신기로서 사대를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도 통신하고 안으로도 통신하고, 체크하고 결정되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주 삼라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 이거야, 태양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일체 모두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 이거야. 세상살이 사는 거에 가설이 돼 있고. 그러니 믿고 물려서 지 않는 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가는 계기가 되어서 차근차근해 하나하나를 배려.

나쁜 짓 봐도 놓아야 하는지

문 항상 따뜻한 담뱃에 감사 드립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놓는 공부야 이 공부라면,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지어 놓는 나쁜 짓과 질서, 그리고 규칙은 불법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다, 좋다는 생각을 짓는 것도 착이려면 나쁜 짓을 보아도 '주인공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지은 대로 입력 될 것'을 하며 놓아야 하는 건가요? 그것이 틀렸다면 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지적하고 따져야 하나요? 그도 저도 아니라면, '나와 둘 아닌 지난날의 내 모습이잖아. 몰랐을 때의 내 모습이잖아.' 하고 또 관해야 할까요?

답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잘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내 탓으로 돌려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 내 탓으로 돌려라.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라. 그건 왜냐?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낳기 때문이니까. 내 탓으로 돌려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내 탓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깊은 마음 속에, 근본에다가 놔서 입력이 되고 입력이 된 게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법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입이 무거워지고, 말이 적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안으로 매사를 굴러서 거기다 맡기기 때문에 입력이 왜 가지고 다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법이 되니까 그대로 걸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계를 거쳐서 물질계로 나오니까 그것은 걸림이 없지만, 물질계에서 물질계로 그냥 나간다면 항상 걸리고 사고가 생기고 이렇하게 되고 망종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대처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잘하고 안으로 굴러서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법신이 되신다면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모든 걸 입력해서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화복해지고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거기가 놓지 않고 그냥 입으로 '어유! 차라리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이러죠? '어유! 저놈의 자식, 저 거 차라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말이 선선하게 나가죠? 그러나 이러는 과거로부터 꼭 인연을 맺어서 온 한가 죽인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바깥으로, 물질계로 나와서 등갈게 응응하도록 한다면 모두가 법이 돼서 여러법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이 험악하더라도 험악하지 않게 되고, 어떠한 걸림이 오더라도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계 다가오면 힘들고 답답해

문 먼저 이렇게 라도 스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그때 스님의 법문과 함께 수많은 계기를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바로 잡고 수행해 나가다도, 경계가 오면 너무나 힘이 들고 제 자신을 생각하면 답답하였습니다.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쁘고 환희로웠으며, 우리 인생이 한철이라는 스님의 말씀에, 한철인데 뭐가 무서울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잡고 갑니다만 조금만 지나다 보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하며 마음을 연구하다 답이 나오면 너무나 즐겁고, 그러다가 또 절반 달라지지 않는 저를 보면 또 답답해집니다. 이런 저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며 꼭 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죽더라도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놓아지지 않는 습이나 올라오는 모든 마음들을 그 자리에 되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지 스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답답하고 허전한 게 도대체 뭐니까? 믿지 못하니가 답답하고 허전한 거지. 정말로 믿어 보세요. 무엇이 답답하고 허전한가? 자기가 있는데, 참 자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예전에도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놈이 있다면 절도 지을 거고 제 놈이 없다면 못 지을 거니까, 하고 난 편하게 살았어요. 왜냐?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제 놈이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제 놈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요! 어떠한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법우님은 믿음을 못하니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영혼한 친구를 왜 못 믿어요? 자기 영혼한 친구의 집이니까요. 그 집하고 둘이 아니에요. 음식을 해서 끓이려면 오븐에 넣어야 끓여 내지요? 그렇듯이 그 오븐이 집이란 말이예요. 모든 걸 해내는

20면으로 계속

가혹한 안목을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문